중국 기업의 그린 자동차 투자 동향

베이치푸텐 연료전지 버스 올림픽에 사용

사진 : www.bifoton.com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 육성책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서 그린 자동차 생산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예로는 베이징소재 업체인 베이치푸텐(Beiqi Foton)과 선쩐 소재 업체인 비아디(BYD, 比亞迪)를 꼽을 수 있다. 베이치푸텐은 2005년에 하이브리드 카 개발을 위해 약 6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2008년 1월에 동 사의 EU-V(歐V)하이브리드 버스 30대를 광저우시에서 상용화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카의 산업화단계를 완성했다. 또한 베이치푸텐은 EU-V 연료전지 버스를 개발해 2008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 오토쇼에 전시한 후 베이징올림픽기간에는 올림픽전용 공공버스와 마라톤경기 전용버스로 사용하였다. 2008년 12월 28일 베이치푸텐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그린 자동차산업기지' 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설립당일 베이징 시 공공버스그룹은 베이치푸텐과 800대 하이브리드 도시공공버스 및 샤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그린 자동차산업기지로 총 건축면적 30만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50억 위안에 달한다.

비아디(BYD), 전기 자동차 F3DM 출시

사진 : http://hi.baidu.com

BYD그룹은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로 2003년 설립 이래 꾸준히 그린 자동차 개발에 주력해왔다. BYD가 그린 자동차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약 10억 위안에 달하며 자동차 엔진동력 배터리 분야 개발인력만 해도 약 500명에 달한다. 2008년 12월 BYD는 중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 F3DM을 선쩐에서 출시했으며 이 자동차는 1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탑재해 배터리 부족 시 엔진모식으로 운행할 수 있다. BYD가 F3DM을 출시하자 현지 언론에서는 도요타나 GM 등 세계적 기업들에 비해서도 2-3년 정도 앞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선쩐 시 정부가 BYD와 20대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BYD는 올해 안에 순수전기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계가 보는 관련 산업현황

업계는 그린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 해결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그린 자동차 산업은 초보단계로 향후 산업화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치푸텐의 쪼우징광(趙景光)당부서기는 그린 자동차 산업화 단계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한다.

- 첫째는 소비자들이 그린 자동차를 접수하는지 여부,
- 둘째는 그린 자동차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데 개발에서 양산으로의 전환이 순리로울지 여부,
- 셋째는 그린 자동차 판매가격이 대부분 전통에너지 자동차에 비해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는 것이다.

BYD의 홍보부 쉬안(徐安)경리에 따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현재는 개인 소비보다는 집단 구매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인소비 관련 개발사업과 마케팅사업을 적극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베이치푸텐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 기업의 하이브리드 카 판매는 전부 집단구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그린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개발과 생산환절(生産換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에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에도 주력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11월 '그린 자동차생산 진입관리규칙' 을 발표한 후 2008년 베이징시에 그린 자동차 설계제조 산업기지를 설립하고 2009년 1월 23일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3개 지역에서 에너지 절감 및 그린 자동차산업을 시범 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는 중국 그린 자동차 시장

중국의 그린 자동차 붐은 전통자동차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모든 외국계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시장이 초보단계에 처한 시기를 이용해 그린 자동차관련 부품, 핵심부속품의 수출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전통자동차 분야에서는 외국계기업에 비해 낙후하지만 그린 자동차분야에서는 다소 앞서가는 상황으로 수입품목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지역별 시장특성이 상이하고 빈부격차가 큰 시장으로 진출전에 현지시장규모, 소비형태, 유통구조, 경쟁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만 최대 전자제품 제조기업 FOXCONN그룹, 그린IT산업 진출

우측부터 폭스콘 그룹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 C-Lock의 Vincent N. Cook, EIM의 Bruce Lyman, IBM의 Mrak F. Easton
출처 : iThome(www.ithome.com.tw)

2009년 3월 4일, 대만 최대 전자제품 EMS 기업 FOXCONN그룹은 IBM 및 IBM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보 솔루션 서비스 공급 업체인 C-Lock(C-Lock Technology), EIM(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Green Cert 서비스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독점 에이전트 권을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그린 IT 응용 서비스 산업에 진출했다.

Green Cert는 C-Lock이 유럽, 미국 등지의 기업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설계한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으로, 탄소 배출상태를 측량 및 점검하는 기업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IBM의 5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응용한 컴퓨터 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오염원 배출자료를 점검 및 수집하도록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통계를 근거로 탄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IBM은 Green Cert 시스템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소재 국가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 가능성이 높아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서비스 공급자로 전 세계적으로 사업영역을 뻗치고 있는 폭스콘을 제휴사로 선정하였다.

C-Lock이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EIM은 기술의 상품화 사업을 지원, IBM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지원하며, 폭스콘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판매를 담당할 예정으로 폭스콘 가오슝 지점이 Green Cert의 시장개척 및 기술이전 등 사업 추진 실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폭스콘 그룹은 사업 추진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양성에 최대 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린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대만의 일반 산업계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내적 자체 에너지 절감 방안 정도만 실시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폭스콘의 이번 투자는 매우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드웨어 전문 제조업체인 폭스콘 그룹은 그린사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의 첫 걸음으로 신흥시장인 탄소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폭스콘의 선택은 2020년경 3,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시장의 성장 잠재력[1]을 볼 때, 승산이 높은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폭스콘은 IBM과 PC 및 서버 등 하드웨어 제품 방면에서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는데,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에까지 관계를 확대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상호 관계가 보다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폭스콘은 IBM의 백그라운드에 힘입어 그린 사업 진입과 아울러 한결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1) 세계은행, 탄소시장의 현황 및 발전 추세(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